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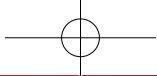
Interview

앞으로 (AFRO) 의유진



춤은 우리를 웃고 소리치게 만든다. 응어리진 것을 비워내고 다시 채우게 한다. 점잖았던 맥박이 음악을 만나 서서히 체면을 내려놓으면 왠지 다 별거 아닌 것 같다. 엉망으로 뛰는 심장과 한구석이 육신거리는 고민까지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아프로팝(Afro-pop)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아프로 댄스. 그 춤이 가진 총천연색 매력에 용감하게 뛰어든 댄서 유진과 이야기를 나눴다. 보기만 해도 흥이 오르는 그의 춤은 날것의 감정을 세상에 풀어준다. 그를 만난 날, 그렇게 자유를 얻은 한 녀석이 팔딱팔딱 뛰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기쁨과 환희를 섞은 무언가가 쿵쿵. 아프리카의 비트로.



Interview



굳이 '척' 하지 않으려고 해요. 춤출 때 멋있으면 되니까요.

요즘 댄스파티나 공연으로 바쁘다고 들었어요. 쉬는 날에는 어떻게 지내요?

아프로 댄스가 여름의 강한 이미지와 어울리다보니 이 시기가 가장 바쁘거든요. 쉬는 날이면 바다에 가서 햇볕 쬔다며 몇 시간씩 누워 있고는 해요. 땀 나면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자고요. 그게 제 충전 방식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잠깐 동해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 건가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충전의 지표네요.

맞아요. 겹집이 떨어져 나갈수록 우울해져요.(웃음)

아프로 댄스는 자유로운 에너지가 돋보이는 장르죠. 유진 님에게 이 춤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상한 애. 애는 진짜 이상해요. 색깔이 정말 많거든요. 아프로 댄스라는 한 장르 안에서 춤출 때는 흥나는 느낌, 분노에 취해 전투에 나가는 느낌, 재간둥이처럼 막 추는 느낌을 다 낼 수 있어요. 아프로 댄스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감정의 기복을 다 표출하는 아이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가식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가식 없는 친구,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다른 장르도 찾았는데 어느 순간 제 걸모습과 내면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프로 댄스를 춤출 때는 그런 걸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힘든 감정일 때는 그런 느낌으로, 신날 때는 또 신나게. 스타일이 많아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어요.

친구는 자연스레 닮아가잖아요. 아프로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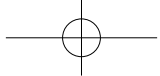
이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이상해요.(웃음) 춤 성향이랑 사람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수업에 의외로 내성적인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도 춤추다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숨겨져 있던 본능을 표출하듯이. 표정을 잘못 짓는 사람이라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보여요. 이 사람 지금 행복하구나. 그럴 때면 유독 뿌듯해요. 수강생들이 감정을 분출할 때 같이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유진 님이 추구하는 수업 분위기가 있나요?

어떤 수업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춤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엔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 수업을 추구해요. 그저 안무를 따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고민을 안은 채 돌아갔으면 해요. 저도 배울 때 그랬거든요. 연습을 거듭해서 자신에게 어려운 안무에 성공했을 때 느끼는 희열을 알려주고 싶어요. 반면에 제가 '병아리반'이라고 부르는 취미반 수업은 분위기를 매번 바꾸려고 해요. 흐린 날에는 느린 곡을 가져가서 그냥 분위기에 젖으라고 시켜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나 다들 흥이 올라 있을 때는 빠른 비트에서 달리라고 소리치고요. 다 같이 춤추며 동화되는 감정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춤 수업에서 볼 수 있는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져요. 훨씬 허물없다고 할까요.

반대의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무가나 댄서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 말도 맞지만, 멋있는 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저를 멋있게 바라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망가지고,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소리를 질러도 멋있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척'하지 않으려고 해요. 께죄죄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춤출 때 멋있으면 되니까요.



행복이 삶의 모토라고 들었어요.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에는 쉽지 않아요. 춤추는 게 행복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춤을 시작한 건데요. 작년에는 한창 바빴다가 겨울이 되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멘탈도 흔들렸어요. 다행히 여행을 다녀와서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요.

몰랐어요. SNS에서는 늘 밝아 보였거든요.

몸이 힘들어도 음악을 틀고 춤추면 다시 행복해지긴 해요. 요즘은 무언가를 더 발전시켜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좋아서 춤췄다면, 이제는 어떤 협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예요. 이 춤을 더 좋은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프로코리아 팀 식구들과 제자들에게 더 큰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마주한 사소한 행복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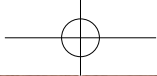
지난주에 저희 아프로코리아 팀에서 댄스파티를 열었을 때요. 제가 만들어 놓은 판에서 사람들이 잘 노는 모습을 봤을 때 행복했어요. 또 용산에서 했던 풀 파티 공연에서도요. 보통 춤을 출 때 관중들의 표정이 다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관중들의 반응이 없으면 지금 잘 흘러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작을 나열하고는 있지만 제 내면에서는 깨지고 있는 거죠. 풀 파티 때는 살짝만 움직여도 반응이 와서 재밌었어요. 말하다 보니 사소하지도 않네요. 큰 행복이에요.

'척'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렇다면 댄서 유진은 최유진이라는 사람과 얼마나 같고 또 다른지 궁금해요.

댄스 커뮤니티 안에서 제가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건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저를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수업하면서 긴장을 확 풀고 나중에는 서로 엉덩이 치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수업해도 집에 갈 때는 다시 기분이 처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저 비즈니스로 대해서 억지웃음을 짓는 건가, 한참 혼란스러웠어요.

누구에게나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함께일 때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둘 다 저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한쪽 성향만 있을 수 없잖아요. 춤추고 수업할 때는 진짜 좋아서 웃지만, 집에 갈 때는 조용히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거죠.



Interview

59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할 거예요.

춤을 추다 보면 목혀 있던 감정이 터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해방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작년에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쯤 가나에 한 번 더 다녀왔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며 아프리카 전통춤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니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제대로 해방감을 느낀 것 같아요. ‘왜 얹매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춤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을 옥죄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뭔가 탁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많은 20대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곤 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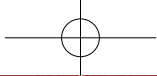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할 거예요. 회사 생활이 즐거운 분들도 많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걸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일에 얹매이는 순간도 와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누가 다른 일 하겠냐고 물으면 ‘그냥 이거 할래.’ 하고 결국 되돌아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대는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어차피 불확실한 미래라면 좋아하는 일에 내 미래를 걸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댄서 활동을 마음먹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17년, 퇴사하고 3개월 동안 ‘춤 여행’을 떠났다고요.

아예 댄서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떠난 건 아니예요. 그냥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며 춤추고 싶었죠. 그런데 3개월 동안 춤만 추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올 때쯤 고민이 많았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춤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같은 고민이요. 그렇게 돌아와서 ‘맨땅에 헤딩’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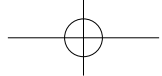
그 여행에서 아프로 댄스의 매력에 빠진 건가요?

맞아요. 뉴욕에서 종류별로 춤을 배웠는데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보다 아프로 댄스에 가장 끌렸어요.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을 만큼. 흑인 친구들과 부대끼며 소란스럽게 배우는 수업 분위기도 좋았고요. 문화 자체에 확 매료되어 버린 것 같아요.



Interview

19



Interview

앞으로 어떤 댄서가 되고 싶어요?

최근에 아프로 댄서들끼리 모여 수업하고 파티하는 행사에 참석하러 바르셀로나에 다녀왔거든요. 그 행사에서 목표가 생겼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네이티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댄서가 되고 싶다고요. 아프리카 댄서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뿌리에서부터 타고난 전통춤 일 테니까요. 아시아인인 저도 그렇게 '맛있게' 잘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유진 님의 삶은 몇 BPM으로 박동하고 있나요? 아프로 댄스에 걸맞은 빠른 비트일 수도, 둔탁한 박자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제 내면과 외면의 박동수가 달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120BPM으로 저를 마구 채찍질하는 느낌. 얼마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제 심장 뛰는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느리다는 말을 들었어요. 보통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를 뛰는데 저는 47회를 뛰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인가 싶어서 놀랐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 그럴 수 있대요. 춤출 때는 심장이 빨리 뛰니까 그때 힘을 다 써서 평소에 느린 게 아닐까요.(웃음) 실제 성격도 느릿느릿한 편이거든요. 계속 천천히 박동하고 싶은데, 삶이 저를 그렇게 두지 않네요.



춤추듯 들썩이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오갔던 '좋아함'이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 본다. 이유 없이 좋아한다고, 좋아서 춤춘다고 말할 때 반짝거리던 눈빛. 아프로코리아 팀 이야기를 하며 호탕하게 웃던 웃음소리. 그녀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애정이 어려 있다.

되돌아보니 유진이 아프로 댄스를 소개하던 말들이 마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느껴져 웃고 말았다. 그 말처럼 '이상한' 유진의 몸짓에 한 박자를 보태고 싶다. 여름이 지나면 그녀의 BPM도 속도를 늦출까, 생각하면서.

